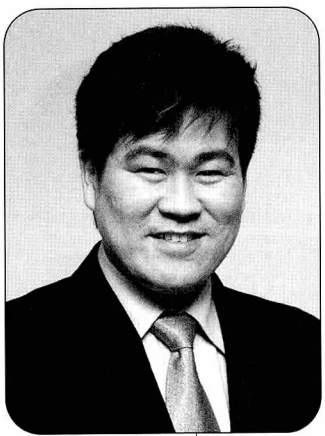
와이맥스/와이브로 전문벤처 '주목'



케네스 강 대표

회사의 설립배경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통신 과도기에 "특허기술이 아닌 표준기술에 기반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IP와 CDMA가 서로 다른 기술이었지만, 새로운 통신시장에서 이 둘의 '적절한 그룹핑'이 모바일 표준기술의 새로운 마켓을 형성하리란 전조를 읽은 결과였다.

현재 이 업체가 주력하는 분야는 '모바일 와이맥스(IEEE 802.16e. 국내 '와이브로')'. 초기 무선랜 장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와이맥스 시장성을 바로 보고 뛰어든 결과다. 올해 중반 세계 최초 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 서비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의 주요 시발점은 한국"일 수밖에 없으리란 판단이 강하다.

이 회사 케니스 강 대표에 따르면, "이는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세계가 와이브로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이 때문에 KT의 관련 비즈니스 행보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케네스 강 대표는 "와이브로는 IT업계 새로운 현상으로 해외에서 KT의 비즈니스 모델에 갖는 관심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 NTT 도코모나 KDDI, 교세라 등과 모바일 와이맥스 관련, 현재 많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시장성을 감안, 에어브로드밴드는 국내외 와이브로 비즈니스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트랜드에 의한 시장개척 차원에서 매출 기대효과도 적지 않은 편이다. 국내 조기 서비스에도 불구, 주요 국가의 본격 서비스까지는 1~2년 소요될 것을 감안, 국내 와이브로 참여는 레퍼런스 확보 차원에서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파트너십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실제 사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장비가 채용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마켓 파악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관계자들과 기술적 논의 및 영업을 진행중이다.

와이브로 · 무선랜 분야 주력

국내와 달리, 현재 해외에서는 모바일 와이맥스의 시장성에 대해 여전히 시기상조란 분석이 많은 형편이다.

모바일 와이맥스 표준화에 깊게 참여중인 인텔조차 '고정형 와이맥스' 시장전망을 2008년까지 내놓았지만, 모바일 와이맥스 경우, "모바일 와이맥스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당분간 시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강 대표 전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을 레퍼런스로 삼을 경우, 최종 표준인증(공인된 상용제품 출시)까지 시장 선점 효과는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험을 통과한 '와이맥스 표준 제품' 출시 예정시기는 올 후반기쯤.

모바일 와이맥스(혹은 와이브로) 장비업체의 본격 경쟁도 이때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까지는 각 업체간 시장상황을 둘러싼 치열한

에어브로드밴드(대표 케네스 강 Kenneth Kang, www.airbb.com)는 미국의 'IT젖줄'인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한국계 기업이다. 지난 2001년 10월, 시스코 IP 기술과 삼성전자의 CDMA 기술을 섭렵한 전문가 5, 6명으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무선 분야 새로운 기린아로 떠올랐다. 특히 'CDMA와 IP의 접목'을 장점으로 해 '와이어리스에 모바일(이동성)을 부가하는' 새로운 통신 조류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 yjpak@cellular.co.kr)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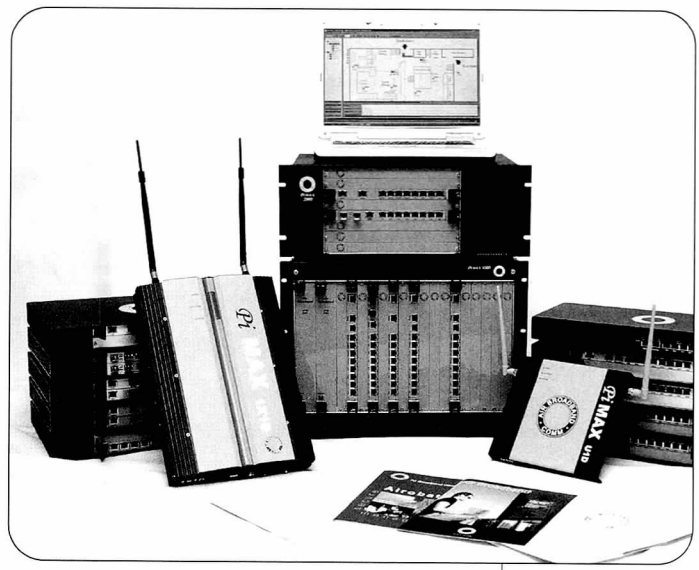
에어브로드밴드는 현재 와이맥스/와이브로 관련 액세스 컨트롤 라우터 & BS(제품명: PiMAX) 중심의 제품군으로 기술 파트너십 및 영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RAS(Radio Access Station)와 ISP의 IP 네트워크간 심레스(seamless)한 트래픽 관리를 가능케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인 AMAXS는 와이맥스/와이브로 장비를 컨트롤하는 GUI 인터페이스 사용을 손쉽게 한다.

와이브로 이전, 에어브로드밴드는 무선랜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KT의 공식파트너이기도 한 이 회사의 무선랜 제품(Airobatics)은 가격대비 하이엔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게 특징. "IP선상에서 모빌리티를 리얼타임으로 지원", "오버 스펙(Over Spec)이 됐다"는 것인데, '코드레스'로서 무선랜은 '와이어리스'가 아니지만, 이 회사 제품은 이를 로밍부분까지 영역을 확대,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와이브로 접목도 쉬웠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무선랜 시장 전망에 대해 강 대표는 "매스마켓은 아직 안 열렸으며, 그 시기는 2006,7년이 될 것"이라고 시장성에 대한 기존 우려를 불식했다. 무선랜과 와이브로 시장의 '충돌'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미국 애널리스트 판단을 인용,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 그대로 "무선랜은 무선 랜(LAN)이고, 와이맥스는 무선 맨(MAN)"이라는 것.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경우, 무선랜을 죽일 수 있겠지만, 시장차원에서 무선랜 자체 IEEE의 계속적인 진화로 시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Wireless IP Products

에어브로드밴드는 현재 미국본사와 한국과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를 동남아 등지로 지속 확대할 생각이며, 현재 국내외 업체 투자를 물색 중이다.

이미 이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가치를 인식한 일본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상태. 향후 국내 사업이 많아질 것에 대비, 대기업 파트너를 상대로 '전략적 투자'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국내외 상당수 업체들이 에어브로드밴드 제품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국내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 역시 에어브로드밴드 로드맵의 일환이다.K